

〈번역논문〉

당 제국과 지방제후-위기와 재건*

陳嘉煒**

〈목차〉

- 제1장 河南
- 제2장 關中
- 제3장 河北
- 제4장 江淮

제1장 河南

당 조정과 반란군의 대치가 시작된 하남은 안녹산 반란 시기에 帝國의 다중 모순이 두드러지게 집중되었다. 전통적 역사 서술은 대부분 이 시기 張巡과 許遠 등이 睢陽(즉 宋州)을 死守한 事迹에 대한 묘사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순·허원과 반란군이 대항한 역사적 의의는 사실 중앙정책의 변동, 玄宗·肅宗의 권력쟁탈, 지방세력과 중앙의 힘겨루기 및 ‘暗戰’으로 충만한 모순의 기초 위에 존재하였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본래 자신

* 이 글은 李碧妍, 『危機與重構－唐帝國及其地方諸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5의 제1장~제4장의 각 小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저서는 서론, 본문 1~4장, 결론을 대신하여: 변진시대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 東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課程

과 같은 지방 관료가 많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 역사상의 ‘충신’ 형상 및 睢陽을 사수한 ‘영웅’의 사적은 개인의 충정과 절개가 만들어낸 공적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정치적 모순과 이해충돌이 빚어낸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제국을 위해 첫 번째 하남의 위기를 극복한 장순과 허원이 최종적으로 河南節度使¹⁾를 대신하여 안사의 난 전기에 하남의 주인공이 된 것과는 달리 안사의 난 후기에 하남이라는 무대에서 반란군의 상대역이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하게도 조정의 명을 받은 元帥와 그 아래 장수들이었다. 숙종시기 하남 軍政 판도의 재건과 군정요원의 조정은 원수의 교체를 단서로 다른 면모를 보였는데, 그 실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조정에 따라 하남 미래발전의 두 가지 기본 추세가 또한 점차 명확해졌다. 하나는 안사의 난 중에 크게 성장한 지방군장 세력이 점차 하남에서 퇴출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平盧系 군벌을 주체로 한 河朔 군인집단이 곧 하남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²⁾ 숙종시기에 하남에서 영도적 역할을 수행하던 원수 세력이 代宗 초기에 최종적으로 와해됨에 따라 하남도 정식으로 평로계 군벌이 대세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淄青·汴宋·淮西라는 세 개의 평로계 藩鎮이 대종 大曆 연간 전기에 크게 성장하였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립화 경향을 부단히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河北 반란군 집단 출신인 滑亳節度使 令狐彰은 도리어 죽기 전에 변진의 반독립 상태를 철저히 바꾸기로 결심하였

1) [역자주] 堀敏一, 「藩鎮內地列置の由來について」,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汲古書院, 2002, 7~8쪽 참조.

2) [역자주] 정병준, 「安史의 亂과 遼西 平盧軍의 南下 - 李忠臣의 活動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87, 2013; 정병준, 「唐代 遼西 平盧軍의 南下와 田神功의 活動」, 『인문학연구』 93, 2013; 정병준, 「安史의 亂과 李正己」, 『동국사학』 37, 2002 등.

다.³⁾ 영호창이 表를 올려 교체를 원한 것을 계기로 대종이 하남에서 중앙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변자 즉 永平軍을 설치하였다.⁴⁾ 대력 말기에 汴宋 李靈曜의 반란에 대한 군사동원으로 대종은 3대 평로계 번진의 하나인 변송 번진을 와해시키고,⁵⁾ 동시에 나아가 영평군을 하남에서 치청·회서와 나란히 설[并列]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양성하였다. 또한 미래에 하남 지역 번진이 각자 제 갈 길을 가도록 종자를 뿌렸다.

조정외 권위를 새로 세운 德宗이 즉위하고 이어서 발발한 ‘네 번진의 난[四鎮之亂]’은 정식으로 하남 번진의 분열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제국이 안사의 난 이후 하남에서 가장 엄중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 위기는 대운하의 넓은 지역이 막히고 마비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위기의 극복은 조정이 하남 번진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정치이념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더욱 현실적인 지연정치에 대한 고려는 조정이 하남 번진 문제를 처리하는 지도원칙이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하남은 이후 憲宗이 번진을 누

3) [역자주] 『자치통감』 권222, 肅宗 上元 2년(761) 5월 조, “初, 史思明以其博州刺史令狐彰爲滑·鄭·汴節度使, 將數千兵戍滑臺, 彰密因中使楊萬定通表請降, …… 甲午, 以彰爲滑·衛等六州節度使”. [胡三省注: 滑, 衛, 相, 貝, 魏, 博] (7113~7114쪽); 『신당서』 권65, 方鎮表2, 滑衛, 상원 2년 조, “置滑衛節度使, 治滑州, 領州六, 滑·衛·相·魏·德·貝. 尋以德州隸淄沂節度而增領博州”(1803쪽); 同, 大衆 廣德 원년(763) 조, “滑衛節度增領亳州, 更號滑亳節度使, 增領德州. 以衛州隸澤潞, 析相·貝別置節度, 魏博別置防禦”(1804~1805쪽); 同, 大衆 大력 4년(769) 조, “滑亳節度增領陳州”(1806쪽).

4) [역자주] 『자치통감』 권224, 大력 7년(772) 12월 조, “置永平軍於滑州”(7219쪽); 『신당서』 권65, 방진표2, 滑衛, 大력 7년 조, “賜滑亳節度爲永平節度”(1807쪽); 同, 大력 11년 조, “永平節度增領宋·泗二州”(1807쪽); 同, 大력 14년 조, “永平節度增領汴·潁二州, 徙治汴州”(1808쪽).

5) [역자주] 『신당서』 권65, 방진표2, 河南, 大력 11년(776) 조, “廢河南節度使, 曹·兗·鄆·濮·徐五州隸淄青節度, 宋·潁·泗三州隸永平軍節度, 汴州隸淮西節度”(1807~1808쪽). 정병준, 「平盧節度使 李正己에 대해 -代宗時期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2002, 120~124쪽 등 참조.

르고 조정을 일으키는[抑藩振朝] 정책을 실현할 때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이른바 ‘元和中興’이 하남에서 실현됨에 따라 평로계 변진의 와해를 지표로 하는 하남 ‘順地化’ 과정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하남 정치지리 판도의 재건이 실현된 후 하나의 새로운 정치대립과 사회모순이 또한 하남에서 조용히 배양되고 있었다.

‘교만한 병사[驕兵]’ 문제로 표상되는 변진 軍亂은 평로계 시대가 끝난 후 하남 軍政集團이 상호 일체화된 것에서 바뀌어 군대가 지방화하고 변진 수장은 중앙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또 지방 군인집단의 강력한 굴기를 예고한다. 이러한 두 가지 단서가 얽혀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지방 군인 집단을 만당 시기 하남 정치무대의 선두에 올려놓는다. 미래의 趙宋 왕조에 대해 말해 보면 그것은 대운하의 우세한 지위를 계승하여 정식으로 하남을 그 정치 중심에 올려놓고 동시에 당대 후기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직업군인 집단을 하나의 활달한 사회계층으로 만들게 된다.

제2장 關中

당대 전기와 마찬가지로 서북의 이민족은 줄곧 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이었다. 안사의 난 시기 및 반란이 종결된 후 河西·隴右의 상실로 인해 제국의 심장 지역은 강대한 이민족, 특히 吐蕃에게 직접 노출되었다. 이에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공간체계가 점차 관중에 건립되었다. 이 공간체계의 기초를 이룬 것은 덕종 중기에 형성화된 경사 서북[京西北] 8鎮이다.⁶⁾

6) [역자주] 黃樓, 「唐代京西北神策諸城鎮研究」, 『碑誌與唐代政治史論稿』, 科學出

경사 서북 변진의 정치적 실체를 처음 구성한 것은 안사의 난 이전에 있었던 동·서 양대 군사 집단 속의 몇 갈래 중요한 세력이었다. 그들은 제국을 도와 안사의 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관중에서 새롭게 기반을 찾은 朔方軍,⁷⁾ 멀리 서쪽에서 온 四鎮北庭軍,⁸⁾ 그리고 안사의 본거지에서 온 幽州軍이다. 반란이 종결되고 이민족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는 시기에 관중의 이들 몇 갈래 신·구 군단은 이민족을 방어하는 주력이 되었다. 그러나 제국이 관중 변진을 억제하려는 정치심리 하에서 기실 일찍이 빈번한 출전으로 인해 전력이 크게 손상된 이들 군단은 최종적으로 ‘奉天之難’⁹⁾을 초래한 모든 항쟁이 실패한 후 “찢어지고 주멸되어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애써 구축한 경사 서북의 공간구조도 이후 변경 변진의 전투력 하락을 메울 수 없었다. 제국이 실질적으로 변경 변진의 실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신경 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능동성을 상실한 관중 변진은 이로써 제국 후기에 가장 활력이 없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관중 바깥에서 온 군단을 두려워하여 변경 변진을 의도적으로 제약하려 한 심리는 제국이 그 직계 군대, 특히 神策軍¹⁰⁾을 양성한 것에 서도 나타났다. 덕종·헌종 시기에 이르러 신책군은 이미 京畿 서부에 집중적으로 주둔하던 것에서 더 넓은 관중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衛

版社, 2017, 179~182쪽;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중국고중세사연구』 58, 2020, 248~249쪽 등.

7) [역자주] 李鴻賓, 『唐朝朔防軍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0 등.

8) [역자주] 劉玉峰, 「論安西北庭行營軍」,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7-1; 劉玉峰, 『唐德宗評傳』, 齊魯書社, 2002, 13~19쪽 등.

9) [역자주] 黃永年, 「涇師之變」發微, 『文史探微』, 中華書局, 2000; 王效鋒, 「唐德宗“奉天之難”探析」,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6; 郁冲聰, 「“建中之亂”始末與德宗朝初年若干藩鎮問題」,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3-5 등.

10) [역자주] 何永成, 『唐代神策軍研究』, 臺灣商務印書館, 1990; 張國剛, 「唐代的 神策軍」,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文津出版社, 1994 등.

軍, 關內 번진, 遙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변을 방어하고 변경 번진을 제약하는 다차원의 공간 구조도 이미 만들어졌다. 당대 말기에 신책군의 방어 공간은 近畿로 줄었지만, 그 인원수는 아마도 관중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토변과 변경 번진 모두가 더 이상 관중에 대해 큰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이렇게 조금 보수적인 屯防 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다. 外重內輕 이념을 뒤집은 것에 지나지 않은 帝國은 상실한 河湟 지역을 수복해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는 웃돈을 주운 셈이다. 그리고 신책군 자체가 크게 발전한 덕종 貞元 연간에는 변경 군대가 사여와 후한 상을 받기 위해 궤변으로 신책군에 遙隸하고 또 三輔의 豪強이 특권을 얻기 위해 신책군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黃巢의 대군이 장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市井의 백정과 술파는 사람 [屠沽]과 심지어 納課戶로 가득 찬 경사 신책군은 징집 출정의 명령을 받자마자 겁에 질려 와해되었다.

관중의 정치지리적 위치에 대한 토론은 또한 경사 동쪽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실력이 약한 듯 보이는 경사 동쪽 번진은 사실 도리어 안사의 난 시기에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점이었다. 그들의 중요성은 그들과 관련된 地緣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또 그들과 특정한 정치세력 즉 환관 및 금군의 관계 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경사 동쪽 번진의 반란 시기와 반란 후 작용 및 지위의 전환은 可塑性이 강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제국이 동란시대에서 평화시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 장에서 관중의 정치지리 구조에 관한 서술은 주로 관중 번진의 성격 변화, 특히 경사 서북 변경 번진의 쇠약과 신책군의 부침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말하건대 전자의 쇠약이 후자의 굴기에 수반된 것이고 또 제국이 관중의 위기를 해결하고 관중의 안전체제를 재건하여 일시적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후자의 조용한 쇠락이

가져온 결과는 아마도 로버트 서머스(Robert M.Somers)가 한 말과 같게 될 것이다. 관중은 “오랫동안 줄곧 중국 정치권력과 권위의 다룰 수 없는 소재지이었지만, 차후에 다시 그 중심적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제3장 河北

비록 안사의 난이 발발한 지역이지만 안녹산의 하북에 대한 통제력은 전면적이지도 확고하지도 않았다. 명목상으로 安氏가 통치한 燕南 지역은 반란 초기에 조정과 반란 진영 간의 주도권이 계속 바뀌었을 뿐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제국 판도 내에서 지방 勤王 세력이 가장 활약했던 지역이다. 안녹산의 통치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달랐던 것은 반란 전에 이미 형성된 하북 軍政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즉 武后·玄宗 시기부터 하북은 邊州 軍鎮을 1차 방어선, 燕南 團結營을 2차 방어선으로 하고, 또 幽州·營州 경내에 蕃部가 운집하여 모여 사는 羈糜州의 운용이라는 군사구도가 점차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을 계승한 안녹산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 군사구조를 그의 반란군단 안에 이용하였다. 즉 그는 기미주의 蕃將과 蕃族部落을 핵심으로 하고 邊州의 병사를 주력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특별히 중시되지 않았던 연남 단결병은 근왕 진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다.

반란 초기 안녹산의 위임을 받아 삭방군과 하북을 다투던 史思明이 최종적으로 肅宗 至德 元載(756) 말에 연남의 근왕 세력을 일소한 후 반군의 핵심인 蕃部和 舊將 문제가 반란군 집단의 주요 모순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京陝 서쪽에서의 패배와 洛陽을 빼앗긴 후 安慶緒는 부락의 이

산과 구장의 투항을 저지할 수 없었고, 그 집단 또한 相州 전투 후 사사명에게 병탄되었다. 여러 장수들과 동등하였던 사사명은 稱帝建制·制禮作樂 등을 통해 권위를 세우고 반군을 통일하는 목적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수단은 蕃將을 파면하여 部衆을 분리시키며 측근을 양성하고 하북 지역을 번진[藩]으로 나누는 등의 조치와 결합하여 그를 지지하는 漢人 집단의 격려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사명의 피살과 그로 인해 일어난 薊門의 내란으로 반군의 새로운 영수인 史朝義는 하북 將領을 통제할 수 없었다.

안사의 난이 종결되자 河朔藩鎮 시대의 대막이 올랐다. 비록 유명한 하삭삼진은 비슷한 長期半割據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성격과 특징은 도리어 전통 역사가들이 인식한 것처럼 완전히 비슷한 것은 아니었다. 반란군 집단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계승한 成德 번진은 장령층이 그 권력 중추를 차지하였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다. 비록 이러한 것이 성덕 초기에 크게 흥기하였다가 크게 몰락하는 운명을 맞게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후 번진 수장의 계승과 번진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장수들 사이의 宗主 형식은 또한 성덕과 조정의 관계에도 행해져 성덕은 하삭삼진 중 조정에 가장 공손하고 감정이 깊은 번진이 되었다. 성덕과는 반대로 기반이 취약한 魏博은 번진을 세울 때부터 유명한 魏博牙軍을 포함한 군사력 발전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박아군의 굴기는 또한 위박 발호와 동란의 근원이 되었는데, 위박 중후기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전기의 위박은 성덕과 마찬가지로 장령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번진이었다. 장령과 아군의 주도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사실 위박 역사의 발전에 따라 점차 진행된 것이다. 기미주 시대를 마감한 幽州는 안사의 난 이후 내부 동란이 가장 빈번했던 하삭 번진이다. 비록 성덕과 마찬가지로 유주 또한 장령들이 정치무대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이러한 장령집단은 점차 會府의 牙將에서 屬州 또는 外鎮의 군장으로 바뀌었다. 또한 中晩期에 이

르면 山後¹¹⁾ 宿將 세력이 가장 강해지게 된다. 장령집단의 공간 변동은 유주 외부 모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유주의 병농합일과 軍政 일체의 체제는 그 전통적 역사·지리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주의 외부 모순의 변화에 따라 이 체제가 가장 명확하게 펼쳐지는 공간은 역시 만당의 山後 지역이다. 요컨대 穆宗 長慶 연간 이후 그 때까지 三鎮을 통치하던 3大 가족이 퇴출됨에 따라 원래의 軍政 구조가 상당히 비슷했던 하삭삼진은 각자의 길을 갔다. 그리고 최후에 두 개의 강력한 외부 정권 즉 宣武와 河東의 공격으로 잇달아 멸망하였다.

이 장에서는 하북집단 내부의 모순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하북이 왕조 판도 내에서 중앙 통제력이 가장 약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계속하여 당조와 이들 소위 ‘化외의 땅’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 관계는 ‘河朔舊事’를 키워드로 하여 서술하였다. 하삭삼진 번수의 사적 승계를 승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河朔舊事의 전통은 당조가 하삭을 경영할 힘이 없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당조가 하삭을 경영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경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士인들이 제국에 대한 하북의 현실적 의의를 고려한 후 마음이 바뀐 결과이다. 그리고 전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삭삼진을 대하는 사인들 간의 태도도 달랐다. 幽·雲이 5대 시기에 증원에서 이탈한 것은 바로 왕조와 지방의 정체성에 장기간의 괴리와 편차가 존재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미래의 趙宋 왕조가 증원을 접수하였을 때 원래

11) [역자주] 山後는 옛 지역명이다. 五代의 梁 초에 劉仁恭이 盧龍(幽州)을 지배할 때 지금의 河北省 太行山 북단 軍都山의 迤北 지역에 山後八軍을 설치하여 契丹을 방어하였다. 李鳴飛, 「“山後”在歷史上的變化」, 『陝西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7-1; 任愛君, 「唐末五代的“山后八州”與“銀鞍契丹直”」, 『北方文物』 2008-2; 任愛君, 「論五代時期的“銀鞍契丹直”」,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2007-3; 李翔, 「關於五代“山後八軍”的幾個問題」, 『中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6-4 등 참조.

의 邊州 지역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화외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강력한 外敵 즉 거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장 江淮

안녹산의 반란이 강희에 미친 영향은 조정과 반란군의 대결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라 玄宗·肅宗의 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종·숙종의 투쟁이란 바로 '永王 李璘의 亂'¹²⁾을 가리킨다. 현종·영왕·숙종 삼자의 모순은 영왕이 동쪽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진행되고 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대부들의 선택도 분분하고 모순된 특색을 나타냈다. 따라서 영왕 사건에서 우리는 필연적 혹은 마땅하다는 태도로 이 사건에 휘말린 인물들의 행위를 재단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 인물들의 매우 기괴한 운명은 그 자체로 중추세력 간의 투쟁이 긴박하던 시기에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긴박한 환경 자체가 또 더욱 긴박한 안사의 난과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은 사람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간단한 是非의 판단도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영왕의 난'에 이어 일어난 '劉展의 亂'¹³⁾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한 맥락으로 고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다만 후자의 충돌을 야기한 큰 줄기는

-
- 12) [역자주] 賈二强, 「唐永王李璘起兵事發微」,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1-1; 李志剛, 「唐永王李璘起兵失敗原因探蹟」, 『武陵學刊』 2015-1; 秦中亮, 「永王李璘事件」發微 - 關於“玄肅之爭”學說的再檢視, 『學術月刊』 2017-11 등.
13) [역자주] 黃壽成, 「唐肅宗應對南北藩鎮反叛之策略差異及緣由」,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4-2, 173~176쪽 등.

이미 조정 내부의 중추세력 간 투쟁에서 중앙과 지방군장 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 유전 본인 및 이 사건에 연루된 李藏用·遜待封 등은 모두 처음에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으나 한결음씩 반란의 길로 내몰렸고 심지어 ‘叛臣’으로 무고되었다. 사실 영왕 사건이건 유전의 난이건 우리는 지방군장이 본래 모두 상당히 활동적이고 자못 실력을 지닌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안사 반란군과 교전하였다면 크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상층부의 투쟁이나 중추부의 心態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런 장령들은 결국 모두 의미 없이 방치되거나 희생되어 소모되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하남이 전쟁으로 처참해지고 강회사회에 불의의 재난이 닥친 것이다.

대종 시기의 노력으로 경제사회가 회복된 강회 지역은 마침내 덕종 초기에 신속하게 굴기하였다. ‘4鎮의 亂’의 발발과 韓滉의 兩浙 절도사 임명에 따라 新興의 鎮海軍은 이전의 미약하고 수동적인 면모를 완전히 바꾸어 덕종 초기의 정치 무대에서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강대한 경제적 능력과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진해군은 조정이 削藩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의 출현으로 중앙의 강회에서 위기가 마침내 중추세력 간 투쟁 및 중앙과 兩河 將領의 모순에서 명확하게 중앙과 신흥 강회번진의 대결로 바뀌게 되었다. 한황에 대한 덕종의 타협 및 한황의 이미지 변신은 바로 이러한 조정과 번진의 모순이 체현된 것이다. 江東이 강력하게 굴기하자 덕종은 한황 사후에 바로 삭번의 조치를 취했음¹⁴⁾에도 불구하고, 貞元 연간의 정치적 흐름은 한황 이래 형성된 강동 번진의 능동적인 자태를 행동안 지속시켰다. 일체의 변화는 현종 원화 시기가 되어야 이를 수 있었

14) [역자주] 정병준, 「四王의 亂」 이후 德宗의 藩鎮政策, 225~229쪽; 정병준, 「唐 德宗代 여러 反亂과 江淮 藩鎮의 動搖」, 『중국고중세사연구』 60, 2021, 163쪽, 171~173쪽.

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한 것이 李錡의亂¹⁵⁾이다.

浙西의 군단 구성은 이기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사건의 쏠과정을 분석하면 이기의 군사집단은 변수와 그 가족을 호위하는 私兵, 관하 州에 주둔하는 親信 外鎮兵, 그리고 층차가 다른 각 牙軍集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기의 隨身牙軍을 통솔하는 兵馬使 張子良은 변진의 중요한 실권자였다. 당시 절서군의 무력 핵심은 바로 장자량이 통솔하는 즉 증원에서 온 ‘徐州兵’으로 구성된 진해군 左廂官健이었다. 이들이 창끝을 돌리는 것은 이기 반란의 실패를 선고하는 것이다. 절서 군단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록 안사의 난이 폭발한 이래 조정이 강회에서 맞이한 위기의 형식과 특징은 각각 달랐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건에서 장교계층 특히 북쪽에서 온 장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영왕 사건에서 이기 사건까지 강회에 닥친 위기의 파급 범위와 정도는 갈수록 작아졌으며 당 헌종의 ‘원화중흥’ 사업이 강회에서 실현되면서 강회는 마침내 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제국의 판도 안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력의 유효성을 확정할 때 변진 節帥나 군장과 같은 상층부에만 눈길이 머물서는 안 된다. 사실 하층사회를 보면 강회에 대한 제국의 통제력은 도리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모순현상의 출현은 사실 당대 후반기 지방권력 구조재편의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회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다만 하남의 지방 군인집단들과는 달리 미래의 강회 지방 권력구조에서 주역이 되는 것은 農·吏·軍·商 등 다양한 신분의 토호세력이었다. 아마도 谷川道雄 선생이 설파한 대로 “당대 후반기 민중의

15) [역자주] 谷川道雄, 「唐代の藩鎮について -浙西の場合」, 『谷川道雄中國史論集』 下卷, 汲古書院, 2017, 17~23쪽(원래는 1952년); 曹建剛, 「唐代“江東”地域政局研究」, 山東大學 박사학위논문, 2014, 176~180쪽 등.

동향을 보면 당대 귀족과 구별되는 토호층이 이끄는 민중의 지역적 집단이 표면화한다. 이것이 송대 이후 새로운 사회의 원형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¹⁶⁾고 할 수 있다.

16) 谷川道雄, 「一東洋史研究者における現實と學問」, 『中國中世社會と共同體』, 國書刊行會, 1976, 123쪽.